

# 호마의 전래와 조선시대 호마목장의 설치\*

이 홍 두\*\*

1. 머리말
2. 호마의 기원과 한반도 전래
3. 호마의 교역과 마종 개량
4. 조선시대 호마목장의 설치
5.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시대 말은 이전부터 전래한 토마(土馬)와 북방의 호마(胡馬)로 구분한다. 토마는 마갑과 중무장한 기병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병은 체형이 큰 호마를 사용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산출되는 호마는 서역마(西域馬)·몽고마(蒙古馬)·달단마(韃靼馬)로 구분한다. 서역마는 아랄해(Aral sea)·카스피해(Caspian sea) 접경지역과 중국의 서쪽 신강성 위글자치구의 타림분지를 통하여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5458).

\*\* 홍익대학교 교수

도달되는 모든 지역, 오늘날 이란과 터키지역에서 사육된 마종으로 ‘아랍마’의 원조다. 서역마 중에는 대완마(大宛馬)가 뛰어나서 이를 한혈마·천리마·천마·용마 등으로 불렀다. 몽고마는 서역마와 함께 아시아 말의 주종을 이루는데, 대체로 몽고고원에서 흥기한 흥노·선비·돌궐·거란·몽고 등에 의해 개량되었다. 특히 B. C. 3세기 말 몽고고원에서 일어난 목득선우가 서역의 대완마를 얻어 그들의 토종마인 몽고마를 개량하였다. 10세기 초에 지금의 내몽고 지역에서 거란(907~1125)이 일어났는데, 이 지역의 백산(白山)·흑수(黑水) 사이의 광대한 초원은 유명한 명마 산지로서, 중국에서는 이곳에서 산출되는 말을 기북마(冀北馬)라 하여 중시하였다. 거란이 멸망한 후 몽고의 후신 달단이 등장하면서 달단마라고 칭했다.<sup>1)</sup>

서역마와 몽고마는 흥노의 기마문화를 매개로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등자(鎧子)와 마면갑(馬面甲)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 충렬왕 2년(1276) 원나라가 탐라도에 몽고마를 들여와 몽고식 목장을 설치하면서 몽고마의 숫자가 크게 증대하였다. 그리고 고려 정종 원년(945)부터 예종대(1105~1122)까지 여진의 달단마가 고려에 대량으로 전래되었다. 당시 여진이 달단마를 공납한 횟수는 총 127회이며, 조공마의 숫자는 대략 4천~5천 필에 이른다. 한편 조선초기에는 야인정벌에 따라 국교가 단절됨으로써 여진의 달단마를 직접 교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의 사무역을 통해 소량의 달단마를 수입할 뿐이었다. 그러나 성종대부터는 호마의 사무역을 금지함으로써 호마의 소형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조선시대의 마목장 설치는 건국 직후 여진의 호마 수입이 단절되고, 명나라가 제주목장을 탈취하려고 하자, 전마확보의 위기에 직면한 태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졌다. 태종은 제주목장

1) 南都泳,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8~30쪽.

의 암수 호마 1천8백 필을 전라도 진도에 옮기고, 1백여 필은 사복시의 건의에 따라 강화도 길상산에 방목하였다. 2년 후 길상목장이 완성됨으로써 종마의 숫자가 크게 증대하였다. 세종은 동왕 7년(1425)에 진강목장을 설치하고 양마(良馬)의 산출에 진력하였다. 특히 강화도 부속섬에 설치한 신도목장과 보음도목장에서는 호마를 별도로 방목했는데,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새끼 말을 섬 밖으로 반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조는 강화도 장봉도목장을 호마 전용목장으로 확대시켜 그 새끼를 전국의 이름난 목장에 종마로 분배하였다. 그러나 성종대부터 목장을 폐지하여 둔전을 설치함으로써 호마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였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 등 외국 학계에서는 호마의 마종(馬種)과 마산(馬産)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한국 학계에서는 호마가 전마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호마의 한반도 유입 과정이나, 호마를 종마로 한 개량마의 계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달단마를 서역마의 잡종으로 인식할 뿐 연구를 소홀히 한 결과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달단마의 계통 파악도 부진한 실정에 있다. 몽고마의 기원에 대해서는 Stegmann과 강상파부(江上波夫)가 프르제발스키마(중국 북방마)로 인식하였다.<sup>2)</sup> 그러나 독일 Wager와 중국 사성협(謝成俠)은 몽고 야생마로 본 것이 다르다.<sup>3)</sup> 그리고 조선의 달단마를 몽고마로 보는 견해,<sup>4)</sup>와 서역마로 보는 견해가 상호 대립한다.<sup>5)</sup> 한국 학계는 호마가 몽고마 계통이라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흥두가 고구려 호마를 서역마로 해석한 것이

2) Stegmann, F. P., 『Die Rassengeschichte der Wirtschaftstiere und ihre Bedeutung für die Geschichte der Menschheit』, Fischer, 1924;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 중앙공론사, 1967.

3) Wagner, W., 『Die Chinesischen Landwirtschaft』, Parey, 1926; 謝成俠, 『中國養馬史』, 북경과학출판사, 1959.

4) 加茂儀一, 『家畜文化史』, 日本法政大學出版局, 1973.

5) 林田重幸, 「日本在來馬の系統」, 『日本畜産學會報』 28, 1958.

주목된다.<sup>6)</sup> 여기서는 먼저 호마의 기원과 한반도 전래를 밝히고, 다음으로 호마의 교역과 마종 개량에 대해 고찰하되, 고려시대는 여진이 조공한 달단마를 종마로 사용하였고, 조선시대는 북방에서 수입한 달단마를 종마로 사용한 문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조선 시대 호마목장의 설치와 호마생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 호마의 기원과 한반도 전래

한국의 마종은 고려 충렬왕 13년(1287) 재래마인 향마와 북방에서 전래한 호마로 구분하였다.<sup>7)</sup> 그런데 필자는 한국의 호마를 삼국시대의 서역마, 고려전기의 달단마, 고려후기의 몽고마, 조선전기의 달단마로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서는 먼저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말과 마구·갑주·궁시·명적(鳴鑼)과 신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흉노의 기마문화를 통해 삼국시대 호마의 전래 문제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고려가 조공무역을 통해 여진으로부터 달단마를 수입한 과정을 통해 고려전기의 호마 전래를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국가가 일반 백성을 매개로 달단마를 수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호마의 전래를 살펴볼 것이다.

삼국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마전을 수행하였고, 3~4세기부터는 중장기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대형마가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삼국의 토종 과하마는 소형이기 때문에 마갑과 중무장한 기병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었다. 『삼국사기』 여러 곳에 보이는 양마는 체형이 큰 호마이거나 호마와 토마가 교접한 개량

6) 이흥두, 「고구려 胡馬의 유입과 鐵騎兵」, 『歷史와 實學』 52, 2013.

7) 『高麗史』 卷 125, 兵志, 馬政.

마이다. 그런데 고구려는 호마를 흉노의 후예인 선비(鮮卑)로부터 수입하였고, 백제는 말갈에서, 신라는 동옥저를 통해 수입하였다.

고구려의 호마 유입 과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야생의 호마가 국경을 넘어 유입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고구려가 흉노와 접촉하여 호마를 얻게 된 경우이다. 전자는 대무신왕 5년(A.D. 22) 잃어버린 신마(神馬)가 어느 날 부여 말 1백여 필과 함께 나타난 것이고,<sup>8)</sup> 후자는 고구려가 속국이었던 동호(東胡)의 선비와 말을 교역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sup>9)</sup> 유리왕 31년(A.D. 12) 신나라 왕망의 요청에 따라 고구려가 흉노정벌을 위해 기병부대를 중앙아시아 파견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sup>10)</sup>

고대나 중세 전쟁의 승패는 무기와 전술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무기보다 전술의 영향이 더 컸다. 고대 한중간 전술적 핵심은 기동력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마차로 기동력을 실현하였고, 고구려의 기동력은 기병이었다. 고구려 기병의 기동력은 등자(鎧子)로부터 나왔는데, 등자는 흉노가 처음 발명하였다. 그들은 궁시(弓矢)를 주된 무기로 사용하였고, 일명 우는 화살이라고 부르는 명적도 만들었다.<sup>11)</sup> 특히 <그림 1>의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에 보이는 등자와 만궁(彎弓), <그림 2>의 고구려 삼실총 개마무사 전투도에 보이는 마갑과 마면갑 및 무사의 갑주(甲冑) 등은 흉노가 창안한 기마문화다. 이로써 고구려가 흉노의 기마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역마도 함께 수입했을 것이다.

8) 『三國史記』 卷 14, 高句麗 本紀 2, 大武神王 5年 3月.

9) 『三國史記』 卷 13, 高句麗 本紀 1, 琉璃王 11年 4月.

10) 이홍두, 앞의 논문, 2013, 9~10쪽.

11) 南都泳, 앞의 책, 1996, 24~25쪽.



〈그림 1〉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그림 2〉 고구려 삼실총 개마무사 전투도

신라는 북방 기마민족으로부터 서역마를 받아들였다. 1973년 황남대총의 유물을 발굴할 때 5~6세기에 조성된 천마총의 천마도(天馬圖)가 그것을 입증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서역마를 천마(天馬)나 신마로 불렀는데,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신마는 서역에서 왔다. 오손마(烏孫馬)를 얻으니 좋은 말이어서 천마라고 불렀다. 대완의 한혈마(汗血馬)를 얻었는데, 체형이 매우 크므로 오손마를 서극(西極)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고, 대완마의 이름을 천마라고 불렀다.<sup>12)</sup>

위 사료는 중국의 한무제가 오손마를 천마라고 했으나, 뒤에 체형이 큰 대완의 한혈마를 서극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는 장건(張騫)이 대완마를 들여올 때 그와 함께 말 사료로 이름난 목숙(苜蓿)을 가져와 재배한 기사가 있다.<sup>13)</sup> 『삼국사기』에도 신라가 목숙전(苜蓿典)을 설치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sup>14)</sup>, 대완마의 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호마의 전래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고려전기 여진이 조공한 달단마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후기 원나라가 전래한

12) 『史記』 卷 123, “大宛列傳, 神馬當從西北來, 得烏孫馬好, 名曰天馬, 及得大宛汗血馬益壯, 更名烏孫馬曰西極, 名大宛馬曰天馬”

13) 『史記』 卷 123, 大宛列傳 63.

14) 南都泳, 「三國時代의 馬政」 『東國史學』7, 1961.

몽고마다. 10세기 초 여진은 송화강을 중심으로 서여진과 동여진으로 분화되었다. 동여진은 흔히 ‘30성 부락(三十姓部落)’이라고 불리었고, ‘흑수말갈’과 혼용해 쓰였으며, 서여진은 ‘압록여진’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옛 부여·고구려·발해·예맥의 영토로 명마의 산지였다.

여진의 기병 편성은 선두에 돌파용 타격무기를 장착한 중장기병 20기를 배치하고, 후방에는 궁시로 무장한 30기의 경기병을 배치했다. 중장기병이 돌진하면 경기병이 뒤에서 엄호사격을 하였다.<sup>15)</sup> 여진의 중기병과 경기병의 이러한 비율은 중형의 달단마와 소형의 토마에 대한 비율과 유사하다. 여진이 고려에 조공한 말은 <표 1>에서와 같이 토마(土馬)·마(馬)·준마(駿馬)·양마(良馬)·명마(名馬)로 구분하는데, 토마는 경기병에 사용하였고, 마·준마·양마·명마는 중기병에 사용하였다. 특히 토마가 3척(尺) 정도로 체구가 작았던 반면에, 달단마에 해당하는 마와 준마 이상은 4척 1촌(寸)부터 4척 7촌까지의 중형마였다.

여진이 조공한 말들은 수초가 풍부한 높고 추운 지방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매우 강건했다.<sup>16)</sup> 여진의 달인(韃人)들은 그들만의 양마지법(養馬之法)으로 달단마를 길들였다. 양마지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수초의 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살의 수마를 거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진의 모든 말은 봄부터 한 달까지 수초를 양껏 먹여 살을 찌웠지만,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고삐를 메고 풀을 조금씩 먹였다. 수초를 조금씩 먹여 소식으로 단련시키면, 원거리 전쟁에 출전하더

15) 여진족은 중국 선진시대 문헌에서 숙신(肅慎)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만주 길림성 일대에서 농경과 유목생활을 했다. 한대(漢代)와 삼국시대는 읍루(邑婁), 후위시대(後魏時代)는 물길(勿吉), 수·당대에는 말갈(靺鞨) 등으로 종족의 명칭이 변동했다가 거란족의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부터는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었다(유재성, 『한민족전쟁통사』Ⅱ-고려시대편, 국방군사연구소, 1993, 163쪽).

16) 『宋史』 卷 198, 志卷 151, 兵12, 馬政條, “河東一路水草甚佳, 地勢高寒, 必宜馬性”

라도 내성이 길러져 지치지 않았다. 이러한 양마지법으로 길들인 수말을 선택하여 종마를 남기고 거세함으로써 강건한 전마를 얻을 수 있었다.<sup>17)</sup>

고려 초기 여진은 수만 필의 준마를 고려에 조공하였으며,<sup>18)</sup> 여진의 조공마가 고려에 가장 많이 공급된 시기는 현종 원년(1010) 거란이 40만을 이끌고 침공한 거란의 2차 침공 때였다.<sup>19)</sup> 고려는 행영도통사 강조가 40만의 방어군을 편성했는데, 당시 여진으로부터 수만 필의 말을 수입하였다.

고려는 11세기 중엽부터 50여 년간 여진을 장악하여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숙종 9년(1104) 제1차 정주성 전투에서 동여진의 완안부에게 패배함으로써 여진의 조공마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정주성 전투에서 고려가 패배한 이유는 기동력이 열세했기 때문이다. 즉, 고려는 보병이 주력군이었던 반면, 거란은 기병이 주력군이였다. 이에 고려는 윤관의 건의로 기병대인 별무반을 창설하여 제2차 정주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따라서 여진의 달단마 조공은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예종 10년(1115) 아골타가 금제국을 건국함으로써 여진의 달단마 조공은 또다시 단절되었다. 이후 1백 50년간 북방에서 달단마가 유입되지 않았으며, 이로써 고려의 전마는 빠르게 소형화가 진행되었다.

17) 王國維編, 『蒙古史料四種中』, 「黑韃事路淺證」, 499쪽, “韃人養馬之法, 自春初罷兵後, 凡出戰好馬, 並恣其水草, 不令騎動, 直至西風將至, 則取而控之, 繫於帳房左右, 啖以芻少水草, 經月後臄落而實, 騎之數百里, 自然無汗, 故可以耐遠而出戰. 尋常正行路時, 並不許其吃水草, 蓋辛苦中吃水草, 不成臄而生病. 此養馬之良法, 南人反是, 所以馬多病也. 其牡馬留十分壯好者, 作移刺, 馬種外餘者多孱了, 所以無不強壯也”

18) 여진이 고려에 조공한 말의 숫자는 태조 19년(936) 일리천(一利川)에서 후백제와 교전할 때 후 경기병 9천 5백 필, 정종 2년(947) 거란을 방어하기 위해 평균 30만을 선발할 때 수만 필, 정종 3년(948) 동여진의 대광 소무개가 말 7백 필을 바친 사례가 있다(『高麗史』 卷 81, 志第 35, 兵 1, 五軍條; 『高麗史』 卷 2, 世家 定宗 3年 9月).

19) 金渭顯, 『遼金史研究』, 裕豐出版社, 1985, 166쪽.

하지만 고려는 원나라 간섭기간 중 몽고의 마필 관리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즉, 원나라에서는 충렬왕 원년(1275) 경상·전라도에 중앙 관리를 파견하여 각 섬의 목마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동왕 2년에는 탐라도목장을 설치하고, 몽고마 1백 60필을 탐라도에 방목하여 몽고식 마목장을 건설하였다.<sup>20)</sup> 이때부터 탐라도는 명마의 산지로 중국에 알려졌다. 이로써 여진의 금나라 건국 이후 끊겼던 호마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몽고 기병의 절반 이상이 가죽 투구만을 쓴 경기병이었던 반면, 3분의 1은 중기병이었다. 그런데 중기병은 투구와 갑옷을 입고, 이들이 타는 말도 마갑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체형이 커야 했다.<sup>21)</sup> 몽고말은 대체로 체고가 125~132cm(약 4척 1촌~4척 4촌)이며 체중은 250kg 정도였다. 성질이 온순하지만 지구력이 강하고 거친 먹이에도 잘 견뎠다.<sup>22)</sup> 그런데 당시 몽고로부터 들여온 호마는 서역마와 교잡한 몽고마였다.<sup>23)</sup> 다시 말해서 몽고마는 B.C. 3세기 말 흉노의 선우 목덕이 동호와 서쪽의 월씨국을 정복한 이후 서역의 한혈마를 수입하여 몽고마를 개량하였다.

한편 10세기 초 거란(907~1125)은 지금의 내몽고 지역에 요나라를 세우고, 그곳의 백산과 흑수 사이의 넓은 목초지에서 기북마(冀北馬)를 생산하였다.<sup>24)</sup> 그런데 거란이 멸망한 후 몽고의 후신 달단이 등장하면서 기북마는 달단마로 불렸다. 고려 전기에 여진이 조공한 말이 곧 이 때의 달단마였다. 이후 달단마는 거란 영토였던 요동과 두만강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는데, 조선이 여진과 국경을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수입한 여진의 달단마는 고려

20) 『高麗史節要』 卷 19, 忠烈王 2年 8月.

21) 정혜은, 『고려시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225쪽.

22) 남도영, 앞의 책, 1996, 19쪽.

23) 『成宗實錄』 卷 281, 成宗 24年 8月 5日.

24) 謝成俠, 『中國養馬史』, 北京 科學出版社, 1959, 29쪽.

전기의 달단마와 같은 혈통의 말이었다. 아무튼 여진의 달단마는 서역마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지구력이 강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냈다.

### 3. 호마의 교역과 마종 개량

조선시대의 호마 교역은 고려시대보다 크게 축소되었다. 그것은 조선이 4군과 6진을 개척함에 따라 여진과의 충돌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고려 전기의 호마 교역은 여진의 여러 부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여진이 금나라를 세운 예종 10년부터는 호마 교역이 단절되었다. 그리고 원나라 복속기에는 월이 탐라도에 몽고식 목장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몽고마 1백 50필을 전국의 목장에 종마로 분배함으로써 호마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공민왕의 반원정책으로 몽고마 대신 여진의 달단마 교역을 재개하였지만, 그 숫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국제적 변동에 따라 고려 말 호마의 숫자는 100에 한두 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호마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sup>25)</sup>

조선은 건국 직후 명나라의 과도한 징마요구로 인해 전마가 크게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나라가 제주목장을 탈취하려는 야욕을 보이자, 태종은 장기적인 전마확보책의 일환으로 제주목장의 종마를 본토의 목장으로 옮겨 방목하였다. 그리고 세종과 세조는 마종 개량을 위해 여진의 달단마를 민간 교역을 통해 적극 수입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 호마 교역의 문제를 정리함에 있어서 고려

25) 『高麗史』 卷 124, 列傳 47, 辛禡 5年 10月, “馬有二種, 曰胡馬者, 從北方來者也, 曰鄉馬者, 國中之所出也, 國馬如驢, 無從而得良焉, 胡馬居百之一二”

시대 달단마의 교역을 고찰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여진에서 달단마가 수입되는 과정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조선시대에 교역한 달단마가 종마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고찰하려고 한다.

먼저 고려 전기 여진이 달단마를 고려에 진상하는 조공무역에 대해 살펴보자. 10세기 전후 여진은 동아시아의 명마 산지로 유명했는데, 고려에 대한 마무역은 고려건국 초부터 성행하였다. 태조 왕건이 동왕 19년(936) 후백제와 전쟁 때 여진으로부터 1만 필의 말을 수입하여 후백제를 평정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사실,<sup>26)</sup> 정종 2년(947) 거란의 기병을 방어할 목적으로 30만의 광군(光軍)을 선발한 사실 등이 여진에서 들여온 달단마 유입을 짐작케 한다. 한편 정종 3년(948) 동여진의 대광소무개가 달단마 7백 필을 조공마로 바친 사실은 고려와 여진의 마무역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고려 전기에 여진의 달단마가 대량으로 유입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과 관련이 있다. 먼저 고려와 거란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진부족은 친고려정책을 견지하였다. 고려 초기의 경우, 그러한 사례를 보면, 현종 18년(1027)까지는 납공자가 추장이나 수령 등의 직급을 사용하다가 이후부터는 귀덕장군·봉국대장군·영새장군·유원장군 등의 고려 직첩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문종연간(1046~1082)부터는 많은 동여진부락이 거란의 직첩을 고려에 바치고 고려의 직첩을 받아갔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여진부족들이 처음에는 거란에 회유되었다가 고려 쪽으로 다시 옮겨갔음을 볼 수 있다.<sup>27)</sup> 이러한 사실은 여진부락이 호마의

26) 李龍範, 「麗丹貿易考」, 『東國史學』 3, 1955.

27) 金渭顯, 앞의 책, 1985, 168쪽.

납공을 매개로 고려와 우호관계로 전환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여진이 고려에 호마를 납공한 대신 그들은 고려에서 생활필수품을 교역하여 생활의 안정을 누렸다. 여진이 고려에 납공한 호마의 가격은 정종 3년(948) 대광소무개가 말을 가져왔을 때 정해졌다. 당시 여진의 1등마는 은주자(銀注子) 일사(一事)와 면견(綿絹) 각 한 필, 2등마는 은발(銀鉢) 일사(一事)와 면견 각 한 필, 3등마는 면견 각 한 필로 정했다.<sup>28)</sup> 당시 송·요와 비교한 고려의 국제 마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현재 사료가 부족하여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고려의 국내 마가보다는 비쌌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튼 여진과의 호마 교역을 통해 고려는 전마를 얻어 기병의 전투력을 강화하였고, 여진은 물자가 충족하여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여진부족들이 말을 공납한 횟수는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태조 원년(918)에서 인종 원년(1123)까지 200여 년간 여진·동여진·서여진·북여진·동북여진·동서여진·철리국·동혹수·혹수말갈·여진말갈 등이 공납한 회수가 120회 정도다. 그런데 당시 여진이 공납한 말의 품종을 구분하면, 명마 8회, 양마 14회, 준마 31회, 마 50회, 토마 16회였다. 여기서 말의 등급을 구분하면, 명마는 대마(大馬)인 달단마를 말하고, 양마와 준마는 달단마의 개량종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모두 1등급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馬)는 2등급, 토마는 3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충렬왕 때 원나라에서 들여온 달단마를 『고려사』에서 모두 ‘마(馬)’로 기록한 것은 당시 들여온 몽고마의 체구가 중간정도였기 때문인 듯하다.<sup>29)</sup> 그리고

28) 『高麗史』 卷 2, 世家 2, 定宗 3年 9月.

29) 북방의 호마는 몽고마와 달단마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달단마(몽고마)와 대완마(서역마)의 차이를 인정할 뿐 달단마와 몽고마는 동일한 북방계통의 말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두 말의 역사적 배경이 다른 것만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차이는 몽고마의 체구가 달단마보다 작다는 것인데,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몽고마의 한반도 전래는 고려 원종 14년(1273)에 원나라가 제주도를 속령으로 만들어 대규모의 목장을 설치하고, 몽

3등급으로 분류된 여진의 토마를 고려가 수입한 것은 토마가 채구는 작았지만, 산악지형의 전투에서 전투력을 크게 입증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고려왕조 전 시기의 토마수입 횟수가 16회였던 바, 현종대 토마수입 횟수는 <표 1>에서 보듯이 15회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그러면 고려가 현종대에 거란에서 토마를 집중적으로 수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란 성종이 고려 정벌을 천명하자, 동여진이 양마 1만 필을 거란에 바치면서 고려를 적국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sup>30)</sup> 다시 말해서 동여진은 거란의 견제로 인하여 고려에 달단마를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고려가 차선책으로 토마를 수입하여 부족한 전마를 대체하였다.<sup>31)</sup> 특히 6차 거란전쟁 때 강감찬장군이 귀주 일대에서 퇴각하는 거란군을 궤멸시켰는데, 당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인은 산악지형에서 토마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

고마를 목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의 태종이 제주목장의 몽고마를 강화도 길상목장과 전라도 진도목장에 들여와 종마로 사용함으로써 몽고마의 혈통이 계승되었다. 한편 고려에서는 정종 원년(945)~예종대(1105~1122)까지 수천 필의 여진 달단마를 수입하여 종마로 사용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준마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금나라가 건국되면서 달단마의 수입이 끊겼다. 그런데 원나라가 멸망한 이후 조선에서 여진의 달단마를 수입하였지만, 세종의 야인정벌에 따라 수량이 감소하였다. 성종대부터는 달단마 수입을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달단마 수입이 끊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30) 안주섭, 『고려거란전쟁』, 경인문화사, 2003, 117쪽.

31) 현종 즉위년에 발발한 2차 거란전쟁의 기동로는 홍화진→통주→곽주→운전→안북부를 통과하는 북계 서로인데, 이 지역은 지형의 기복이 심한 구릉지대로써 말이 기동을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산악지형의 기마전은 말이 비탈길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체구가 작은 토마를 전마로 활용한 전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안주섭, 앞의 책, 2003, 121쪽).

〈표 1〉 거란 달단마의 고려 유입 상황표

연대	출처	부족명	공납자명	공납마 마종	비고
정종 3년 9월	『고려사』 권 2	동여진	대광, 蘇無蓋	馬	馬 700필
현종 3년 2월	『고려사』 권 4	여진	추장, 麻尸底	土馬	30姓자제 인솔
현종 5년 2월	"	철리국	萬豆	馬	추장의 使臣
현종 9년 1월	"	서여진	未闕達	馬	7인
" 1월	"	동서여진	추장, 鋤栗弗·阿主	馬	40인
" 2월	"	서여진	凌學·渠伊	馬	
" 2월	"	동여진	揉於	馬	부락을 인솔
" 2월	"	서여진	麻捫·麻闕達	土馬	
" 4월	"	동서여진	仇陀囉·渠逸	土馬	20인
" 4월	"	동여진	추장, 阿盧大	土馬	
" 5월	"	"	牛那·特烏·伊弗	土馬	
" 5월	"	서여진	陀億·實弗	馬	10인
" 6월	"	서북여진	加乙弗	馬	30인
" 7월	"	동여진	烏頭朱	土馬	30인
" 10월	"	동서여진	鹽之·渠伊那	馬	50인
" 12월	"	동북여진	阿次·烏乙弗	馬	14인
현종 10년 3월	"	철리국	阿盧大	土馬	추장의 使臣
" 7월	"	서여진	추장, 阿羅弗	馬	
" 12월	"	동혹수	추장, 仇突羅	土馬	
현종 11년 2월	"	동여진	黔弗羅	土馬	7인
현종 12년 1월	"	흑수말갈	추장, 阿豆陀弗	馬	
" 3월	"	서여진	毛逸羅·羅忽羅	土馬	
현종 13년 12월	"	동여진	史彬	馬	
현종 14년 1월	『고려사』 권 5	흑수말갈	烏沙弗	馬	80인
" 4월	"	여진말갈	群豆	馬	70인
현종 15년 7월	"	동서여진	추장圖羅·奴乙堅	馬	
현종 17년 윤5월	"	"	추장	土馬	부락자제 인솔
현종 18년 2월	"	흑수말갈	장군, 阿骨阿駕	土馬	
현종 19년 12월	"	동여진	沙逸羅	馬	
현종 20년 2월	"	동서여진	阿忽沙·一羅骨蓋	土馬	100인
현종 21년 1월	"	동여진	烏乙那	馬	50인
" 2월	"	"	毛逸羅	土馬	
" 5월	"	"	蘇勿蓋	馬	馬 9필
" 12월	"	"	睦史·阿骨·闕那	馬	
현종 22년 1월	"	"	尼牛弗	馬	
" 3월	"	여진	沙逸羅	土馬	40인
" 6월	"	서여진	寧塞大·軍阿志大	良馬	27인
" 6월	"	동여진	大完, 沙伊羅	良馬	58인
" 11월	"	"	毛伊羅	馬	

덕종 2년 1월	『고려사』 권 5	철리국	사신	良馬	
정종 2년 2월	『고려사』 권 6	동여진	장군, 開路	駿馬	71인
" 3월	"	"	추장, 貴正	駿馬	82인
" 9월	"	"	장군, 阿骨	駿馬	135인
정종 6년 1월	"	"	장군, 巴桀	駿馬	40인
" 2월	"	"	장군, 徭寶	駿馬	48인
" 3월	"	"	장군, 阿骨	馬	馬 15필, 33인
" 9월	"	서북여진	장군, 耶盤	駿馬	馬 13필
" 12월	"	동여진	원윤, 阿豆簡	馬	馬 35필, 50인
정종 7년 2월	"	서여진	장군, 尼亏大	名馬	18인
" 11월	"	동여진	沙伊羅·耶於盖	馬	62인
정종 8년 1월	"	"	수령, 昆豆	駿馬	
" 11월	"	"	장군, 冬弗	馬	
정종 9년 3월	"	"	장군, 開老	馬	40인
정종 10년 10월	"	"	장군, 烏乙達	駿馬	144인
정종 11년 2월	"	"	장군, 巴乙達	駿馬	65인
" 4월	"	"	沙於豆	駿馬	35인
" 4월	"	"	要於羅	良馬	70인
문종 1년 11월	『고려사』 권 7	"	장군, 馬志, 高謝	駿馬	46인
문종 2년 1월	"	"	장군, 仇羅麻里弗	名馬	40인
" 1월	"	"	장군, 沙伊羅	土馬	35인
문종 3년 1월	"	"	阿骨	駿馬	32인
" 3월	"	"	麻離害	良馬	20인
" 4월	"	서여진	符巨	良馬	20인
" 4월	"	동여진	沙伊羅	駿馬	79인
문종 4년 3월	"	"	장군, 益漢	駿馬	12인
" 3월	"	"	장군, 阿加主	駿馬	30인
" 3월	"	"	중윤	駿馬	4인
" 3월	"	"	장군, 要羅羅	駿馬	38인
문종 6년 1월	"	서여진	장군, 包加主	良馬	
" 1월	"	동여진	장군, 多老	良馬	10인
" 1월	"	서여진	장군, 高反知	馬	
" 2월	"	동여진	元甫·阿麟	良馬	29인
" 9월	"	"	장군, 沙時賀	駿馬	40인
문종 7년 2월	"	"	阿夫漢	駿馬	33인
" 7월	"	"	장군, 古刁達	馬	30인
문종 8년 1월	"	"	중윤, 英孫	名馬	18인
" 4월	"	북여진	장군, 高遮	駿馬	39인
" 10월	"	동여진	장군, 尼多弗	駿馬	28인
문종 12년 5월	『고려사』 권 8	"	장군, 霜昆	良馬	33인
" 12월	"	"	장군, 高刀達	駿馬	50인
" 1월	"	"	正位, 沒於金	駿馬	18인
" 1월	"	"	중윤, 耶施老	良馬	35인
문종 13년 11월	"	"	장군, 毛下	駿馬	24인
" 11월	"	"	正甫高史	駿馬	23인
문종 17년 2월	"	"	장군, 懷化, 霜昆	駿馬	
" 2월	"	"	장군, 霜昆	良馬	
문종 19년 2월	"	"	尼之達	駿馬	16인
" 2월	"	"	장군, 阿符漢	良馬	27인
" 6월	"	"	장군, 仍蔚	駿馬	17인
문종 25년 8월	"	"	장군, 沙於賀	良馬	20인
문종 26년 9월	『고려사』 권 9	"	霜昆	駿馬	
문종 27년 2월	"	"	대장군, 蘇德	名馬	14인
문종 28년 6월	"	"	장군, 祖仰仁	馬	
" 8월	"	"	장군, 所羅	名馬	28인

문종 28년 9월	『고려사』 권 9	서여진	장군, 古守	馬	10인
문종 30년 1월	"	동여진	장군, 張向	駿馬	19인
" 1월	"	"	장군, 開老	名馬	10인
문종 31년 2월	"	"	장군, 方鎭	駿馬	20인
" 11월	"	"	장군, 康守	名馬	58인
문종 35년 5월	"	"	장군, 陳順	馬	23인
" 8월	"	"	장군, 胡幹	馬	
문종 37년 2월	"	"	장군, 姚彬	馬	
선종 1년 3월	『고려사』 권 10	동여진	장군, 分那老	馬	20인
선종 4년 2월	"	"	장군, 怪八	馬	19인
선종 6년 8월	"	"	장군, 西害	馬	14인
" 11월	"	"	추장, 高舍	馬	21인
" 2월	"	"	도령 · 也沙	馬	17인
선종 7년 2월	"	"	都도령 · 裹於乃	馬	22인
" 9월	"	"	장군, 阿於大	馬	15인
선종 8년 3월	"	"	장군, 皆多漢	馬	40인
선종 9년 2월	"	"	장군, 三彬	馬	
현종 1년 2월	"	"	장군, 所羅	馬	28인
" 2월	"	"	장군, 豆門	馬	48인
숙종 7년 10월	『고려사』 권 11	"	霜昆	馬	30인
" 12월	"	"	추장, 古羅骨	馬	30인
숙종 8년 2월	『고려사』 권 12	"	장군, 高夫老	馬	30인
예종 5년 10월	"	서여진	古佞, 果下	駿馬	98인
예종 8년 4월	"	여진	烏羅骨實顯	名馬	
예종 9년 4월	『고려사』 권 13	동여진	古羅骨史顯	馬	12인
인종 1년 11월	『고려사』 권 15	"	추장, 實現	馬	
충렬왕 2년 8월	『고려사』 권 28	원	塔刺赤	馬	馬 160필(제주)
충렬왕 5년 10월	『고려사』 권 29	"	郎哥万	馬	馬 150필(각섬)
충렬왕 24년 10월	『고려사』 권 31	"	達魯花赤 도리대	馬	馬 14필
공민왕 16년 10월	『고려사』 권 41	여진	納哈出的 使臣	馬	
공민왕 18년 11월	"	"	納哈出的 使臣	馬	
공민왕 23년 11월	『고려사』 권 44	"	納哈出的 使臣	馬	
신우 3년 1월	『고려사』 권 46	"	納哈出的 使臣	馬	

한편 조선시대의 호마 확보는 먼저 국내에 마목장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목축하였다.<sup>32)</sup> 그러나 건국 직후에는 종마로 사용할 호

32) 조선이 마필을 자체 생산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1413년(태종 13년) 7월 북경에서 돌아온 사신이 “제주의 마필은 원나라의 소유이므로 중국으로 옮기려 한

마가 크게 부족하여 여진에서 호마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야인들은 호마를 가지고 조선의 마포·식기·지물·소금·쇠 등 일상용품을 교환하였다. 조선은 일상용품으로 교환한 호마가 군사력을 강화시킨 셈이다. 조선은 여진과의 호마 교역을 위해 건국 직후에는 북평관을 설치하였고, 태종 6년(1406)에는 동북면의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였다.<sup>33)</sup> 야인과 거래하는 호마의 환율 문제는 세종 8년(1426)에 호조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즉, 야인의 대마(大馬) 1필에 상등이면 면포 45필, 중등이면 40필, 하등이면 35필로 하고, 중마(中馬) 상등은 30필, 중등은 25필, 하등은 20필로 하며, 소마(小馬) 상등은 15필, 중등 10필, 하등이면 6필로 하였다.<sup>34)</sup> 이러한 말 값은 『경국대전』 호전에 그대로 규정되어 준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에 적대적인 여진의 여러 부족과 우호적인 동맹가첩목아가 서로 호응하여 경원부를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1410년(태종 10) 길주도 찰리사 조연(趙涓)이 여진 부족 수백 인을 살해하였고,<sup>35)</sup> 이 때문에 여진의 달단마 교역이 크게 감소하였다.

세종 6년(1424) 사복시가 “경원과 경성에 사는 백성들을 매개로 하여 여진족에게 생필품을 주고, 달단마를 교역하여 종마로 사용할 것을” 요청한 바, 세종이 함경도 도절제사에게 “달단의 암수 종마를 감영의 물건으로 그곳 군민이 사는 것처럼 사들이고, 마필수와 털빛과 나이를 보고하도록”<sup>36)</sup> 지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가 직접 야인의 달단마를 매수하지 않고 백성이 대신토록 한 것은 국가가 군수물자의 매매를 감독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국가는 야인의 달단마가 필요할 때는 민간이 대행토록 했는데,

다”는 명나라 조정의 계획을 태종에게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太宗實錄』 卷 26, 太宗 13年 7月 18日)

33) 『太宗實錄』 卷 11, 太宗 6年 5월 10日(己亥).

34) 『世宗實錄』 卷 31, 世宗 8年 1月 7日(壬寅).

35) 『太宗實錄』 卷 19, 太宗 10年 3月 9日(乙亥).

36) 『世宗實錄』 卷 25, 世宗 6年 8月 6日(戊申).

1449년(세종 31)년 세종이 함길도 감사에게 “민간에서 매매하는 야인의 말이나 그곳에서 생산된 말이 있으면 값을 넉넉하게 주고 암수 말 10 필을 보내도록”<sup>37)</sup> 지시한 사실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세종은 왜 함길도 지역에서 달단마를 매수하도록 지시하였을까. 그것은 함길도에서 달단마가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함길도에서 토마의 암말을 방목하면, 달단의 수마가 개원(開原)을 건너와 교접을 통해 혼혈종인 준마가 산출되었다. 따라서 태조가 탔던 팔준마(八駿馬)는 조선에서 산출된 달단마의 혼혈 품종으로 호마와 동급으로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서 강화도 진강목장에서 산출된 별대총(伐大驄)이라는 준마를 용마(龍馬)라고 불렀던,<sup>38)</sup>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한편 세종이 탔던 밤색말(栗色馬: 밤색 빛갈을 띤 말)과 옥비흑마(玉鼻黑馬: 코끝이 검은 말)<sup>39)</sup> 등의 명마 역시 달단마 내지는 달단마와 교접한 혼혈 품종이라고 생각된다.

성종대에 이르러 호마의 숫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것은 “원나라 세조가 제주목장에 호마를 방목한 세월이 오래되어 목장의 말들이 모두 과하마가 되었다”<sup>40)</sup>는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사실 성종대 전국의 마목장 수는 세종·세조대보다 증가하였지만, 호마의 숫자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북방으로부터 달단마 수입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종과 세조대에는 종마로 사용할 달단마를 10여 필 단위로 민간무역을 통해 수입하였지만, 성종대에는 호마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호마의 씨가 끊겼던 것이다. 성종은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鄭蘭宗)이 “야인들이

37) 『世宗實錄』 卷 123, 世宗 31年 2月 23日(甲戌).

38) 『增補文獻備考』 卷 125, 兵考 17, 馬政.

39) 『世宗實錄』 卷 25, 世宗 6年 8月 6日(戊申).

40) 『成宗實錄』 卷 278, 成宗 潤5月 17日(庚戌).

기근으로 그들의 말을 곡식으로 교환할 것을 청한다”는 치계를 영돈녕 이상의 관료들과 의논했는데, 이극배(李克培)가 “야인들이 파는 말을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하되, 마가는 관포(官布)로 지급하자”<sup>41)</sup>는 주장을 받아들여, 달단마의 수매를 허용하였다.

한편 중종대에는 호마의 가치가 더 커졌다. 호마는 성질이 순하여 길들이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재주와 품질이 뛰어나 전마로서 가치가 크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종 때는 암말 두 필을 요동의 수말 한 필과 교환했는데, 중종 때는 호마의 가격이 2~3배가 됨으로써 국내 마필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당시의 실정을 중종 7년(1512) 함경북도 절도사 윤희평(尹熙平)은 치계를 올려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마로 야인들의 모물(毛物)과 교환하는 것은 금하는 법령이 있지만, 말과 말을 교환하는 것은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변방 사람들이 우리나라 마소 7~8필을 주고 호마 한 필과 바꿉니다. 그러므로 야인들의 마축(馬畜)은 날로 번성하지만 조선의 축산은 날로 줄어듭니다. 지금부터는 말과 말을 교환하더라도 엄하게 금하고 법을 어긴 자는 금물을 잠매(潛賣)하는 조항으로 논죄하고, 적발하여 단속하지 않는 병사와 진장도 중죄로 논해야 합니다.<sup>42)</sup>

위 사료에서 함경도 사람들이 야인의 호마 1필과 조선의 토마 7~8필을 교환하기 때문에 야인들의 마축은 크게 번성하지만, 조선의 마축이 쇠퇴하게 되자, 말과 말의 교환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토마를 가지고 호마를 교환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중종 7년 이후 말과 말을 바꾸는 행위를 금령

41) 『成宗實錄』 卷 172, 成宗 15年 12月 12日(乙未).

42) 『中宗實錄』 卷 16, 中宗 7年 潤5月 28日(辛丑), “以牛馬, 易胡人毛物, 已有禁令, 以馬易馬, 曾無禁防, 邊人因此給我牛馬七八頭, 易胡馬一匹, 以是胡人馬畜日繁, 邊方畜產日減, 自今雖以馬易馬, 亦令痛禁, 犯者以潛賣禁物條論斷, 不糾檢兵使及鎮將, 亦重論”

으로 만들어 규제함으로써 야인으로부터 호마를 수입하여 개량종의 양마를 확보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 졌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 후기에도 계속되었으나, 도리어 목축방법의 소홀과 청나라에서 수입하는 달단마의 종자마저도 값이 등귀하여,<sup>43)</sup> 달단마가 크게 감소하였다.

#### 4. 조선시대 호마목장의 설치

조선시대의 말은 다방면으로 사용되었지만, 기병에게 전마를 공급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 따라서 국가 위정자들은 ‘군정은 말보다 급한 것이 없다’<sup>44)</sup>라고 하여 기동력이 우수한 호마의 생산에 주력하였다. 태종과 세종이 호마목장을 전국에 설치하여 4군 6진을 개척한 반면, 성종후반기부터 목장을 폐지함으로써 전마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전마로 사용할 호마의 수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었지만, 조선은 여진으로부터 호마를 수입할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명나라가 달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sup>45)</sup> 조선은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전마 1만 필을 바쳤고,<sup>46)</sup> 이로 인해 여진은 자국과 적대적인 조선에게 달단마를 조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북경에서 돌아온 사신이 ‘원나라가 방목했던 제주목장을 명나라가 탈취하려고 한다’<sup>47)</sup>는 보고를 받고, 태종은 제주목장을

43) 『增補文獻備考』 卷, 125, 兵考 17, 馬政.

44) 『世宗實錄』 卷 21, 世宗 5年 8月 2日(庚戌).

45) 『太宗實錄』 卷 18, 太宗 9年 10月 12日(庚戌).

46) 『太宗實錄』 卷 19, 太宗 10年 2月 13日(庚戌).

47) 『太宗實錄』 卷 26, 太宗 13年 7月 18日(乙未).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였다. 즉, 제주목장의 몽고마 암수 1천 8백 필을 가까운 진도로 옮겨고, 1백여 필은 유사시 수송이 편리한 강화도 길상산으로 옮겨 방목하는 조치를 취했다.<sup>48)</sup> 한편 태종은 당번선군과 백성들을 진도에 이주시키고 목장에 목책을 세웠으며, 왜구의 침범을 막기 위해 수호군도 파견하였다. 그러나 전라도 도 관찰사 김정준(金廷僩)이 수초가 부족한 진도목장을 혁파할 것을 주장하자, 태종이 동왕 14년(1414) 11월 7일 목장을 혁파함으로써 진도목장을 통한 호마의 생산은 성과를 보지 못했다.

강화도에서는 목장을 설치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1415년(태종 15) 1월에 둘레 6만 7천 1백 43척의 길상목장을 완성하였다. 3년 후 강화도 본섬의 길상·진강·북일곶목장과 부속섬의 신도·매도목장에서 목축한 말이 1천 2백여 필에 이르렀다. 이때 암말 5필과 수말 1필을 묶어 1둔(屯)으로 삼고 목자 1명을 배치했는데,<sup>49)</sup> 성별에 따라 암·수말을 구분하면 수말 2백 필, 암말 1천 필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몽고마를 제주에서 처음 방목한 이후 강화도에서 호마를 생산하게 되었다.<sup>50)</sup>

세종 5년(1423) 강화도 암·수말의 총 숫자는 1천 6백 42필이다.<sup>51)</sup> 6년 동안 불어난 숫자가 4백 50여 필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세종은 호마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먼저 강화도 본섬 전체를 목장으로 만들고, 다음으로 호마를 강화도 부속섬에 격리하여 방목하였다.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48) 『太宗實錄』 卷 26, 太宗 13年 8月 23日(己巳).

49) 『太宗實錄』 卷 33, 太宗 17年 6月 4日(戊子), “江華府掌內, 鎮江山吉祥山北一串信島煤島等, 五處牧場內入放, 孳息馬匹, 雌雄并一千二百餘匹, 牧子每一名, 雌馬五匹, 雄馬一匹爲一屯”

50) 태종의 강화도 마목장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할 것; 이흥두, 「조선시대 강화도 馬牧場의 置廢와 戰馬의 生産」 『軍史』 93, 2014, 105~136쪽.

51) 『世宗實錄』 卷 20, 世宗 5年 5月 21日(庚子).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강화부 신도(信島)에 들여보내어 방목하는 흑오명마(黑五明馬)의 자웅마와 주둥이가 검고 눈도 검고 불알도 검고 발뒤꿈치도 검은 결백마(潔白馬)의 자웅마는 그 숫자가 적어서 번식이 많지 않습니다. 두 빛깔의 말을 각도 목장에서 골라 내고, 또 경상도 전라도로 하여금 암수 아울러 각 15필씩을, 충청도·경기도·평안도·함길도로 하여금 각각 10필씩을, 황해도·강원도로 하여금 각각 5필씩을 찾아서 올려 보내게 하여, 경기도 보음도(浦音島)에 방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만 평안도는 바치지 말게 하였다.<sup>52)</sup>

위 사료에서 강화도 부속섬 신도에 암수의 흑오명마와 결백마를 격리하여 방목하였지만, 방목한 호마가 너무 적어 번식되지 않자, 두 종류의 말을 각도에 할당하여 그것을 강화도 보음도에 호마목장을 설치했음을 말하고 있다. 세종의 호마 확보책은 강화도 부속섬 신도와 보음도에 호마목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한편 세종은 사람이 살지 않는 강화도 진법도에 호마 수마 1 필과 토마 8 필을 일찍이 방목했는데,<sup>53)</sup> 이러한 사실은 체구가 큰 호마와 몸집이 작은 토마와의 교접을 통해 4척 이상의 개량마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세종이 호마 목축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고려시대 종마로 사용되었던 달단마가 우왕 3년(1377) 1월 이후 수입이 끊어진 결과 대부분의 호마가 과하마로 퇴화되었기 때문이다.<sup>54)</sup> 이는 세종 6년(1424) 사복시<sup>55)</sup> 제조가 “달단마를 수입하지 못한 지가

52) 『世宗實錄』 卷 66, 世宗 16年 10月 14日(丁巳), “司僕寺啓, 江華府信島入放黑五明雌雄馬, 及烏鶯烏眼烏腎烏蹄潔白雌雄馬, 其數尠少, 孳息不多, 兩色馬匹, 揀出於各道牧場, 又令慶尙·全羅道雌雄并各十五匹, 忠清京畿平安咸吉道各十四, 黃海江原道各五匹, 推覓上送, 放於京畿浦音島” 從之, 但令平安道勿進.

53) 『文宗實錄』 卷 7, 文宗 1年 5月 1日(戊戌).

54) 달단마는 고려 국초부터 여진이 조공마로 진헌하였으며, 충렬왕 2년(1276) 이후에는 원나라가 제주목장에 호마를 방목함으로써 호마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우왕 3년(1377)부터는 달단마의 수입이 끊겼다.

55) 사복시는 마정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소관은 병조에 보고하고 의정부를 거쳐 집

50년이 넘어 그 종자가 멸종되었다”<sup>56)</sup>라고 한 데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종마로 사용한 호마의 등급은 말의 털빛깔에 따라 구분했는데, 품등은 20~30여 종으로 구분하였다.<sup>57)</sup> 특히 털빛깔이 흑오명색·철청색·결백색을 띤 웅마를 최상등으로 여겨 종마로 보호하였다. 세종은 이들 세 품종을 강화도 신도와 보음도에 전담시켜 목축코자 하였지만, 이 세 품종의 호마는 매년 널리 구해도 쉽게 얻을 수가 없었다.<sup>58)</sup> 따라서 세종은 동왕 20년(1438) 의정부가 5색의 종마 중에 오명마(五明馬)·철충마(鐵驄馬)·백마(白馬)는 귀한 색깔이므로 경상·전라·충청도에 각각 호마목장을 설치하여 특별히 번식시킬 것을 주장한 건의를 받아들였는데,<sup>59)</sup> 이는 세종의 호마 확보책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세종은 동왕 31년(1449) 호마 생산의 본 고장인 함길도조차 종마로 쓸 호마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함길도 감사에게 “야인들에게 말 값을 넉넉히 주고 암·수말을 섞어 10필을 교역해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sup>60)</sup> 이러한 사실은 세종대 후반기에도 종마로 사용하는 호마의 숫자가 크게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조대에도 종마로 사용하는 수말 호마가 크게 부족하여 사복시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

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문종 원년 김종서가 영의정으로서 사복시 제조를 맡은 뒤로는 그 소관이 제조를 통해 국왕에 직결되어 처리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그 중요성을 강화하여 제조 2명을 배치하고, 영조 때 『속대전』에서는 제조 2명 중 1명은 영의정이 겸임토록 하였다(南都詠, 앞의 책, 1996, 218쪽).

56) 『世宗實錄』 卷 25, 6年 8月 6日(戊申).

57) 南都詠, 앞의 책, 1996, 371쪽.

58) 『世宗實錄』 卷 49, 世宗 12年 9月 13日(辛亥).

59) 『世宗實錄』 卷 83, 世宗 20年 10月 6日(丁巳).

60) 『世宗實錄』 卷 123, 世宗 31年 2月 23日(甲戌).

- 가)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경기도 임진현의 호곶(壺串), 강화도의 장봉도(長峰島)·신도(信島), 충청도 태안의 안면곶, 전라도 진도 등 목장은 양마가 생산되므로 여기서 얻는 새끼말은 모두 나누어 주지 않고 그대로 길렀습니다.”<sup>61)</sup>
- 나)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경기 강화도 장봉도 목장에 일찍부터 호마를 방목하여 따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튼튼한 암말과 수말을 합해 46 필이 있사운데, 청컨대 5세 이하의 호마 10 필을 서울로 보내고, 나머지 수말 36 필 중 북일·진강 두 목장에 각각 18 필씩 보내어 감목관이 감독하도록 하고, 이빨 숫자를 본시에 보고하여 마적(馬籍)에 등록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62)</sup>

위의 가)는 종마로 사용하는 호마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전국의 목장 중 임진현의 호곶목장, 강화도의 장봉도·신도목장, 충청도 태안의 안면곶목장, 전라도 진도목장에서 태어난 새끼말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고, 나)는 호마를 전문으로 목축하는 강화도 장봉도목장의 호마 46 필 가운데 10 필을 경기도 목장에 보내고, 나머지 36필은 강화도 북일목장과 진강목장에 각각 18 필을 보내되, 호마의 혈통을 마적에 등록했다는 내용이다. 가)·나)를 종합해 볼 때 호마를 별도로 목축하는 호마목장의 증가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목축한 호마의 개체수가 증가하자, 그곳의 암·수 호마를 경기도에 있는 마목장과 강화도 본섬에 있는 두 목장에 분배함으로써 호마목장을 통한 호마의 생산이 증대했다고 하겠다.

여기서 호마를 마적에 등록했다는 것은 호마가 생산되면 관에 신고함으로써 통제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마필의 증감을

61) 『世祖實錄』 卷 5, 世祖 2年 12月 23日(戊午), “司僕寺又啓, 國家以京畿臨津壺, 江華長峯島·信島, 忠清道泰安安眠串, 全羅道珍島等牧場, 爲良馬所聚, 所得孳息, 並不領賜, 以專其養”

62) 『世祖實錄』 卷 9, 世祖 3年 9月 7日(戊辰), “司僕寺提調啓, 京畿江華長峯島牧場, 曾放胡馬, 別取孳息, 見在壯兒雄馬并四十六匹內, 請揀出五歲以下良馬十四送京, 其餘雄馬三十六匹, 北一鎮江兩牧場各送 [十] 八匹, 令監牧官監放, 毛齒報本司, 以錄馬籍” 從之.

파악하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서 종마로 사용되는 호마를 생산한 목자는 말의 나이와 털색과 소유관계를 관에 신고하였다. 관에서는 이를 조사 확인하여 5통의 마적을 작성했는데, 그 중 1통은 감목관이 보관하고 나머지는 목사·지방 관찰사·사복시·병조에 보냈다. 특히 목장마는 소속 군(群)을 구별하기 위해 천자문의 글자를 깊이 낙인하여 농간을 막았다.<sup>63)</sup> 그리고 수속을 끝낸 목자는 마필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즉시 관에 보고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 호마의 생산이 국가적 중대사였음을 시사한다.

사료 가)에서 전국의 호마 목장은 10여 곳이 있는데, 그 중 세 곳이 강화도에 있었던 사실이 주목된다. 특히 장봉도목장은 세종대까지 소를 목축했지만, 세조대부터 호마목장으로 전환하여 호마 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료 나)에서 “46 필의 호마 중 암·수말 14필을 경기도에 보내고 강화도 북일목장과 진강목장에는 수말 18필을 각각 보냈다”는 내용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세조가 세종의 호마 확보책을 계승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 초기에 호마 숫자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제주목장에는 호마가 얼마쯤 있었을까? 이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 먼저 명나라의 지나친 제주마 징발의 경우이다. 제주목장의 호마는 충렬왕 2년(1276) 원나라가 탐라에 몽고식 마목장을 설치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sup>64)</sup> 그러나 고려 말 3만 필과 조선초기 7만 필을 명나라에 바쳐 그 합이 10만 필이었다. 그 중에 약 6~7만 필을 제주목장에서 차출했으므로 호마의 종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sup>65)</sup> 다음으로 호마와 토마를 구별하지 않고, 한 울타리에서 방목한 경우이다. 중종 8년(1513) 12월 26일 한성부 좌윤 김석철이 “제주 3읍의 국둔마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63) 『續大典』 권4, 兵曹 廐牧

64) 『高麗史節要』 卷 19, 忠烈王 2年 8月.

65) 『太宗實錄』 卷 16, 太宗 8年 12月 26日(戊戌).

섞었기 때문에 양마가 많지 않다”<sup>66)</sup>고 상소한 내용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 호마의 잡종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토마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인데, 넓고 개방적인 제주목장의 지형적 특성으로 볼 때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양마가 있더라도 두 살도 되기 전에 장사꾼들과 짜고 남몰래 방매한 경우이다. 당시 상인들은 토마를 호마로 교환하여 큰 이익을 챙겼다.<sup>67)</sup> 특히 세종 3년(1421)에는 상인들이 양마를 무분별하게 육지로 반출함으로써 종마의 씨가 마르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sup>68)</sup>

이와 같이 제주 목장에 호마가 감소한 것은 원나라 간섭기에는 엄격했던 호마의 관리체계가 조선 초기에 이르러 붕괴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따라서 한성부 좌윤 김석철이 “암·수말을 막론하고 두 살 이상으로서 털빛깔이나 품질이 좋은 말이 있으면, 생산되는 대로 해마다 무역하여 별도로 목장을 만들어 한 곳에서 기르면 좋겠다”<sup>69)</sup>고 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시도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제주목장에는 4척 이상의 호마가 많지 않아 중국에 보내는 상공마(賞貢馬)조차도 4척 이하의 토마를 바칠 수밖에 없었다.<sup>70)</sup>

한편 양계 지역에서도 달단마가 산출되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함경도는 본래 달단마가 산출되는 지역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종 15년(1415) 황해도 의 용매도(龍媒島)와 평안도 선천의 신미도(身彌島)에 마목장을 설치하고, 제주목장의 호마를 방목한 사실이다.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보면, 거란이 몽고 지역을 지배하고 중국과 고려를 침입하는 등 맹위를

66) 『中宗實錄』 卷 19, 中宗 8年 12月 26日(庚申).

67) 『增補文獻備考』 권 125, 兵考 17, 馬政.

68) 『世宗實錄』 卷 12, 世宗 3年 6月 10日(辛丑).

69) 『中宗實錄』 卷 19, 中宗 8年 12月 26日(庚申).

70) 『世宗實錄』 卷 49, 世宗 12年 9月 1日(己亥).

떨쳤다. 그러나 거란이 멸망하고 몽고의 후신 달단(韃靼)<sup>71)</sup>이 등장하면서 거란의 기북마는 달단마로 불렸고 고려의 종마로 사용되었다. 한편 13세기 초에 흥기한 원나라가 1367년(공민왕 16) 멸망하자, 몽고의 후예인 달단이 한반도 동북지역을 생활 터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의 함경도와 경계를 이루었고, 달단마를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

달단과 국경선을 접한 함경도는 산이 깊고 풀이 무성하며 샘물이 좋았으므로 조선의 명마 생산지로 이름이 났다. 그런데 이곳에는 함흥의 도련포목장·홍원의 마랑이도목장·문천의 사눌도목장·영흥의 말응도목장·단천의 두언태목장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북쪽의 도련포목장과 남쪽의 제주도목장은 우리나라의 기북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였다.<sup>72)</sup>

도련포목장은 옛 옥저 때부터 신마가 나는 명산지였다. 「용비어천가」에는 “태조 이성계가 탔던 팔준마 중에 한 명마가 도련포에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곳의 말을 용마라고 불렀다”<sup>73)</sup>고 기록하였다. 세종 때 국마 1백 92필을 방목한<sup>74)</sup> 도련포목장은 40리의 넓은 들판 가운데 있어 해마다 함흥·정평·홍원의 장정들을 동원시켜 목책을 세웠다. 따라서 먼 곳의 백성들이 역사(役事)에 고통이 따랐으므로 숙종 14년(1688)에 목장을 폐지했다가, 숙종 35년(1709)에 다시 설치하였다.<sup>75)</sup>

서북면의 황해도 용매도에 제주 호마를 방목한 것은 태종 7년(1407) 영의정부사 성석린(成石璘)이 “쓸만한 제주말을 골라서 육지 근처의 섬에 방목한다면 3년 안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sup>76)</sup>고 주장한

71) 『明史』 卷 327, 列傳 215, 韃靼.

72) 南都泳, 앞의 책, 1996, 234쪽.

73) 『英祖實錄』 卷 23, 英祖 5年 潤7月 16日(戊子).

74) 『世宗實錄地理志』 卷 155, 咸吉道 咸興府.

75) 『英祖實錄』 卷 22, 英祖 5年 6月 30日(癸卯).

76) 『太宗實錄』 卷 13, 太宗 7年 1月 19日(甲戌), “濟州馬群, 中國亦謂之良, 其實則不

직후에 실행한 듯하다. 그것은 태종이 길상목장을 완성한 동왕 15년(1415) 1월 21일에 “일찍이 제주말을 용매도로 옮겨 키웠는데, 그 말이 제주말보다 나았다”<sup>77)</sup>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성종 때 전 개성유수 고태필(高台弼)이 “원나라 세조가 제주에 목장을 설치하고 방목한 달단마의 혈통을 용매도의 호마에서 찾았던 사실”<sup>78)</sup>도 용매도목장에서 순종의 달단마가 생산되었음을 입증한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호마의 전래와 조선시대 호마목장의 설치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호마의 전래, 호마의 교역과 마종개량 및 호마목장을 설치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호마목장의 설치에 고려 전기까지 유지되었던 달단마의 교역체계와 고려 말 몽고마의 유입이 와해되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여진의 조공무역을 통한 달단마의 유입, 원의 탐라목장 설치와 몽고마의 방목, 명의 과도한 징마요구와 조선의 야인정벌에 따른 전마확보가 호마목장을 설치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종전에는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고 탐라목장을 설치한 것을 호마의 한반도 전래의 시작으로 이해하였으나, 필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보았다. 이 문제는 고구려, 고려, 조선이 교역한 북방 유목민족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해답이 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호마를 최초로 전래한 민족은 흉노인데,

及所聞，宜令擇出可用者，放于連陸諸島中，馬政亦宜舉行三年，有成”

77) 『太宗實錄』 卷 29, 太宗 15年 1月 21日(庚申).

78) 『成宗實錄』 卷 281, 成宗 24年 8月 5日(丁卯), “前開城府留守高台弼上書曰, 元世祖命作牧場, 以韃靼馬入放, 至于今號稱龍媒所生”

흉노는 몽고족으로 이후 선비·돌궐·거란·달단·몽고 등으로 계승되었고, 그들에 의해 호마가 한반도에 전래되었다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에는 선비의 서역마가 전래되었고, 고려 전기에는 여진의 달단마가,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몽고마가 전래되었으며, 조선이 여진의 달단마를 수입하여 전마와 종마로 사용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편 호마의 교역과 마종 개량은 북방 유목민족의 흥망 성쇠와 관련이 있는 바, 고려 전기에는 여진이 조공무역을 통해 달단마를 고려에 공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마종개량도 어려움이 없었다. 특히 고려 전기의 호마가 여진의 달단마에서 기원한다는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란 달단마의 고려 유입 상황표를 작성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가 몽고마를 탐라목장에 옮겨 와서 방목하고, 전국의 목장에 몽고마를 종마로 제공함으로써 호마가 널리 퍼졌다. 고려에 조공한 여진 달단마의 마가(馬價)는 3등급으로 나누어 지불하였다. 그리고 여진이 정종대(946~949)부터 예종대(1105~1122)까지 1백년 동안 말을 공납한 횟수는 총 127회인데, 말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토마 16회, 마 57회, 준마 32회, 양마 14회, 명마 8회로서 조공마의 총 숫자는 4천~5천 필 정도였다. 한편 조선시대 호마의 교역과 야인정벌에 따른 군사적 갈등으로 여진의 달단마 수입이 단절됨으로써 조선은 자체적으로 호마목장을 설치하고, 호마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종마로 사용할 호마의 숫자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세종은 토마 암말 두 필을 호마 수말 한 필과 교환하는 제도를 확립하였고, 세조는 세종의 호마무역 정책을 계승하여 호마의 종마 확보에 힘썼다. 그러나 성종대부터 호마의 공·사무역을 모두 금지한 결과 호마의 소형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의 지나친 징마요구와 세종의 야인정벌에 따른

종마의 수입단절은 전마 확보를 어렵게 하였다. 즉, 원·명왕조교체를 실현한 명나라가 제주목장을 강탈하려고 하자, 태종은 전마 확보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주목장의 몽고마 1천 8백 필을 진도로 옮겼다. 그리고 1백 필은 강화도 길상산에 방목하여 종마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조선시대 마목장 설치의 시초였다. 세종은 태종의 강화도 전 섬의 목장화정책을 계승하여 목장 안의 백성을 이주시키려고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전 섬의 목장화는 무산되었다. 이후 세종은 강화도 부속섬에 마목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특히 부속섬에 설치한 신도목장과 보음도목장에서는 호마를 별도로 방목했는데, 호마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새끼말을 섬 밖으로 반출하지 않았다. 한편 세조는 강화도 장봉도목장을 호마 전용목장으로 확대하여 그 새끼말을 전국의 유명한 목장에 종마로 분배하였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 마목장을 폐지하고 둔전을 설치하는 사례가 속출함으로써 호마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목장의 폐지는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원고투고일: 2016.4.2, 심사수정일: 2016.5.21, 게재확정일: 2016.5.24.]

주제어 : 호마, 달단마, 몽고마, 중장기병, 조공마, 호마의 사무역, 종마, 마목장의 폐지, 호마목장, 장봉도목장

&lt;ABSTRACT&gt;

## The Import of Manchurian Horses and the Installation of Manchurian Horse Ranches in the Joseon Dynasty

Yi, Hong-Du

Horses in the Joseon Dynasty are largely divided into native Jeju horses and northern Manchurian horses. Since Jeju horses were not able to bear the weight of the horse armor and heavily armed cavalryman, large-sized Manchurian horses were used for the the cavalry. Manchurian horses were classified by Central Asian horses, Daldan-ma horses(韃靼馬-highland wild horses), and Mongolian horses. Central Asian horses were imported in the Period of the Korean Three Kingdoms, and Daldan-ma horses were imported from Jurchen through tribute trade in the early Koryo Dynasty. The number of tributes through which Jurchen paid horses during the period from King Jeongjong (945~949) to Yejong (1105~1122) was 127, and the number of tributary horses was approximately 4~5,000 heads. In the late Koryo Dynasty, the Yuan Dynasty brought Daldan-ma horses to Tamra-do Island and installed Mongolian-style ranches there. In addition, it brought 150 Daldan-ma horses and distributed them to ranch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is increased the number of Manchurian horses in the country. As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Jurchen was broken in the Joseon Dynasty, Manchurian horses could not be imported directly from Jurchen and only a small number of Manchurian horses were available through private trade. Even the private trading of Manchurian horses was prohibited from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this accelerated the miniaturization of Manchurian horses. Under the rule of King Sejong, a male Manchurian horse

was traded with two female Jeju horses.

In the Joseon Dynasty, horse ranches were installed as one of King Taejong's efforts to secure war horses because the trade of Manchurian horses with Jurchen was stopped and Ming confiscated the Jeju ranch. Taejong moved 1,800 male and female Manchurian horses from the Jeju ranch to Jin-do Island in Jeollado, and 100 heads to Mt. Gilsang in Ganghwa-do Island. In addition, King Sejong installed Sindo and Boeumdo Ranches in islands affiliated to Ganghwa-do Island, and pastured Manchurian horses, and prohibited the colts from being carried out of the islands for preserving the breed. King Sejo expanded the Jangbongdo Ranch in Ganghwa-do Island exclusively for Manchurian horses, and distributed colts from the ranch as breeding horses to other major ranches throughout the country. From King Seongjong, however, ranches were closed and instead government fields were installed, and this reduced the number of Manchurian horses gradually. The closure of horse ranches undermined the military power, and as a result, the country could not avoid Japanese invasion of 1592-1599 and Qing's invas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ngs Sukjong and Jeongjo promoted the northern expedition policy, and installed the cavalry to content with Qing's Eight Banners and this increased the number of Manchurian horses temporarily. As horse ranches had to be closed for arable lands, however, the production of Manchurian horses had to decrease gradually.

Key words : Manchurian horses, Daldan ma horses (韃靼馬), Mongolian horses, the cavalry, tributary horses, the private trading of Manchurian horses, colts(種馬), the Installation of Manchurian Horse, the Jangbong do Ranch, The closure of horse ranches.